

‘소통행정 중심, 모두가 만족하는 새로운 길 개척’

▶ 장영수 군수의 포부



‘풍요로운 미래의 땅’ 합천 장수를 기치로 출발한 장수군 민선7기 장영수 호기 취임 3주년을 맞았다. 합천 장수를 자임하며 ‘합선 장수’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장 군수는 올해 예산 4,000억 시대를 조기에 실현해 무진장의 변방 장수 시대를 마감시켰다. 주요 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대규모 국가예산을 확보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장수군 발전을 이끌었다. 장 군수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더욱 살기 좋은 장수군을 만들고 비약적인 미래 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각오이다. 장 군수의 지난 3년과 남은 1년의 계획과 각오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국가 예산 4000억 시대로 부자 동네 조기 실현

민선7기 장수군의 모토는 현장 소통 중심 부자 동네 실현이다.

장 군수는 취임 당시 소통행정 실현을 약속하고 부자 동네 만들기에 주력했다. 그 결과 장수군은 국가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예산 4000억 원 시대를 앞당기면서 부자 동네 만들기를 조기 실현했다.

예산 4000억 시대 조기 실현으로 가난한 동네, 변방 장수로 불리던 오명에 마침표를 찍었고 더 희망찬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천천 하이패스IC 설치사업 ▲반파국 문화유산 관광지원회 사업 ▲농산물 신선팩이 가공시설 건립 ▲축산물 육가공시설 건립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장수누리파크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이다.

또 ▲장수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 ▲장수 군립도서관이전 건립 사업 ▲정안 문화예술촌 꿈꾸는 예술터 조성사업 ▲장수읍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설치사업 ▲변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 등이다.



안호영 의원과 면담



레드푸드융복합단지

예산 4000억시대 조기 실현 ‘변방 장수’ 오명에 마침표 ‘장수 548’ 정책으로 6차 산업의 고장 조성 중 주민 소통 기반 사업 시행 달빛내륙철도·육십령 등 지역 발전 동력 확보

장수 548정책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독의 지주’의 해

장영수 군수는 1차 산업 농업에서 탈피해 관광과 체험, 교육 등을 접목한 6차 산업 농업의 고장, 앞서가는 젊은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장수 548’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장수 누리파크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가족농촌사업 행사, 어린이 생활문화센터 및 자연놀이터설치, 동물카리반 및 데크오형장 등을 추진해 체험형, 체류형 농촌 거점 휴양마을을 육성한다.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가 주관한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장수누리파크는 체계적인 컨설팅,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활동 지역특화상품 개발, 펌퍼, 관광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받게 돼 장수 대표 레드푸드를 테마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관광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전국적인 농업 관광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천천 하이패스 IC, 장수IC~천천 연결도로 개설, 조랑말 공원 조성은 물론 탁월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남인도단지 정비 등 청정지역 이미지 개선을 통해 더욱 오고싶은 장수군을 만든다.

사고 싶은 장수 농·특산물을 위해 장수시마, 장수한우, 장수오미자를 비롯한 토마토, 두릅, 머위, 식용곤충 등 새로운 소득 작목을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에 대비한다.

군은 젊은 농업인과 우수 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원재료를 중심으로 판매했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장수군은 농축산 종합 가공센터를 건립하고, 증, 환, 간편조리식품 등 장수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등 더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환경과 미래 먹거리에 대비해 군은 식용 곤충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노동력 절감기술 지원을 위한 자체 증식장 장수 수정별 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자체증식 수정별 보급사업을 통해 수정별 봉군을 자체 생산해 보급함으로써 화분매개곤충 군에 따른 농가경쟁비를 50%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합선 장수 수정별(뒤영벌)은 꽃가루 수정 능력이 탁월하고 환경에도 강해 꿀벌로 수정시키기 어려운 토마토와 같은 가지과 작물에서 수정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뒤영벌에 의해 수정된 농산물은 생산성이 좋고 당도가 증가하여 맛이 좋아 품질향상에 도움을 준다.

팔기 좋은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유통 전문 부서를 신설해 사계절 내내 팔 걱정없는 유통환경을 만들어 간다. 또 농특산물 가격하락에



조랑말 놀이공원



장수기이역사관

따른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화 기금을 조성했다.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고 먼 거리까지 이동해야 했던 유통 절감을 위해 군은 비대면 스마트 경매터를 건립하고 농민 편의를 보장, 판로를 확대한다.

소통을 통한, 주민과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마을 조성

장영수 군수가 이끄는 행정의 원동력은 ‘소통’이다.

주민과의 소통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살피며 균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민선7기의 시작과 함께 장수군은 군수와 주민들이 직접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는 장수군 소통콘서트 ‘시장이 답이다’를 열었고, 지난해에는 ‘2020년 장수청년 5·4·8 청춘 토크콘서트’를 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또한 농업이 주된 수입원인 장수의 농업 발전과 농업인을 위한 품목별 간담회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장수한우와 장수시마를 비롯한 오미자, 두릅, 토마토, 찜채소, 수박, 양봉, 식용곤충 등 분야별 농업인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어려움과 지원 사항 등을 직접 살피고 농민

더 잘사는 장수군의 미래 향해 도약

“지난 민선 7기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6차 농업을 통한 돈 버는 농업 농촌, 탄소 기업 유치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먹거리 창출 등에 힘을 쏟아 더 잘사는 장수군의 미래를 향해 도약하겠습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지난 1일 민선 7기 취임 3주년 맞아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민과 소통 행정을 통한 더 잘사는 장수군 미래를 향해 도약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군수는 “취임 3주년 출발과 함께 ‘달빛내륙철도’,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등의 사업이 확정돼 더 큰 장수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를 시작으로 6차 농업을 통한 돈 버는 농업 농촌, 탄소 기업 유치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먹거리 창출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수군은 ‘달빛내륙철도사업’, ‘백두대간

“지역만의 강점 살린 농업·산림·기업유치 농업인부터 모두가 잘 사는 부자동네 실현”

육십령 산림정원’ 사업 등과 함께 정안산 대표 관광지 조성을 통한 ‘장수군산림레포츠 산업’, ‘산림생명산업’ 등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548정책을 발표하고 ‘오고싶고 살고 싶은 장수, 사고 싶은 장수 농특산물, 팔기 좋은 유통환경’ 등을 통한 장수군 미래 비전을 시행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군민의 강점을 살린 농업, 산림, 기업 유치를 통해 농업인 중소

기업 어르신과 청년 등 모두가 잘 사는 부자 동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수548정책으로 장수군이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장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SNS 등으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의 유행 등이 심각해지면서 지자체와 관련기관 등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바로 잡기 위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 군수는 “장수군과 관련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는 행정뿐만 아니라 군민에 대한 모욕인 만큼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군민들이 이러한 것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육십령 고개

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농민들이 사계절 내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기금을 조성하고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 장수한우시육기반구축사업, 계남·계북 등 7개 읍·면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추가지원 등을 시행하고 돈 버는 농업·농촌에 힘을 실었다.

이밖에도 군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여성·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전북대학교 장수캠퍼스 농업시스템학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장학금 및 대학생 빈곤등록금, 장수누리파크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국제·지방세통합민원실 설치, 군민 안전 보행 기금, 결혼 축하금 지원, 이·미용권, 효도수당 지원 여성청소년위생용품 지원 등 농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진행됐다.

달빛내륙철도경유지 유치 첫발,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등 미래 대비한 장수군

장영수 군수는 그동안의 성과 달성에 안주하

지 않고 잘 사는 장수군과 주민들을 위해 장수군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그 시작으로 지난 6월 29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되면서 장수군이 철도역사를 유치할 수 있게됨은 물론, 동부권 철도 교통 중심지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달빛내륙철도사업은 총 사업비 48조가 투입돼 광주-대구 구간 191km에 고속철도화가 추진되며, 대형 국책사업으로 개통될 경우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주행이 가능해진다.

경유지로는 광주광역시, 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장수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고령군 대구광역시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며 장수의 경우 장수-대구·장수-광주 간 거리가 80분 소요되며 주민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나이가 겹쳐서로 분류됐던 사업이 확정되면서 달빛내륙철도가 동서지역간 상생발전, 동반성장 기대는 물론 장수군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달빛내륙철도사업은 최초 9개 경유지

자체로 추진돼 왔으나 장영수 군수는 2018년부터 장수군을 포함한 10개 경유지체로 국가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등 낙후된 전북 동부산악권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역사 유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장영수 군수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을 통해 영·호남 간 유익한 교통 여건을 개선해 동서간 인·물적 교류 활성화와 지역간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며 “광주·대구고속도로와의 연계교통망 구축을 통해 경유지 주민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남북경제권을 구축으로 동서 지역간 상생발전,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최초 철도역사 유치를 위해 앞으로 이루어질 사업진행 과정에도 10개 경유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군민들의 염원이자 숙원 사업이었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이 민선7기 하반기를 희망차게 출발시키기도 했다. 더 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장수군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앞으로 육십령을 자연 그대로의 식생을 활용한 육십령 정원센터, 테마정원 및 숲길, 육십령 캠핑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으로 영호남 상생협력과 생활권 장벽을 해소하고 전국 관광지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전국 8대 종산의 하나인 장수군을 대표하는 장안산 군립공원을 관광 명소화 하기 위해 사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관광인프라를 장수군 산림레포츠 사업, ‘산림생명사업’ 등 장안산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과 명확한 추진 주체를 연계해 장수의 대표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장수의 제2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장수군은 탄소섬유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장수=고광호 기자